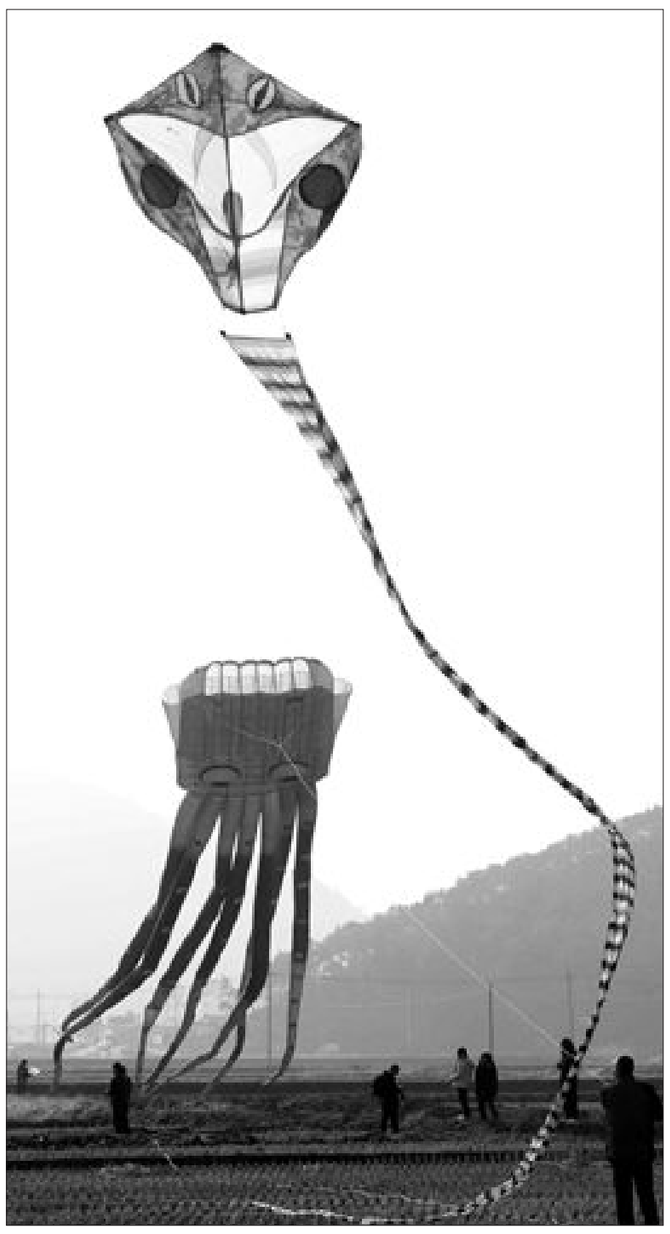

서창들녘 전국연날리기대회 지난 28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 전통한옥문화체험관에서 열린 '제1회 서창들녘 전국연날리기대회'에 참가한 연날리기 동호회원들이 직접 만든 연을 날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화장수요 급증 … 화장로 예약 전쟁

"제 때 화장 하기도 어렵네"

영락공원 하루 20여 건 … 장례일정 미루는 사태도

광주지역의 화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화장로 예약 전쟁이 빚어지고 있다. 발인에 맞춰 제 때 화장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광주지역의 유일한 화장장인 영락공원의 경우 7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있지만, 화장 요청이 발인 당일 오전에 몰리는 바람에 장례일정을 미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9일 광주시도시공사 영락공원에 따르면 최근 하루 화장 건수는 20여 건, 매장은 1~2건으로, 지난 2002년 영락공원 개장 시 매장 15건, 화장 1~2건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광주지역 화장률은 지난 2007년 50%를 넘어선 뒤 매년 4% 이상 증가하는 추세여서 올해의 경우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재 영락공원 화장장의 화장로는 모두 7기로 이중 1기는 비상용이며, 나머지 6기가 하루 4~5차례 가동된다. 산술적으로는 하루 24~30건을 화장할 수 있어, 하루 발생하는 화장 건수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화장 요청이 발인 당일 오전에 몰린다는 점이다.

최근 화장장을 이용한 최모(45)씨는 "장례절차상 발인하는 날 오전에 맞춰 고인을 모셔야하는 데 그 시간에 수요가 몰려 있어 오후에서야 가능했다"며 "화장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도 이에 맞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락공원 측은 이 같은 사정을 이해하지만, 현 상황에서 화장로 수를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영락공원 관계자는 "오전 9시에 첫 화장을 시작해 3시간 단위로 화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며 "늦춰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처럼 하루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화장 수요의 특정시간대 집중에는 사망한 지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고, 사망진단서 등이 있어야만 예약을 할 수 있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화장 수요가 꾸준히 늘어 장묘문화가 화장에 맞춰져야할 필요성은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과도기인 만큼 매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때 화장로 신설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묘지 부족으로 지난해부터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특별·광역시내에서 매장이 사실상 금지됐지만, 광주 영락공원의 경우 전체 1만8천300기 중 1만500기가 사용되고, 7천8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남아 있어 향후 15~20년 가량 매장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통사고·익사·화재…3명 사망

주말 휴일 광주·전남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에서는 교통사고와 해상 익사사고, 난방용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29일 오후 2시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모 호텔 앞에서 A(52)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버스 승객 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28일 오후 7시40분엔 영광군 홍농읍 우봉마을 앞 국도에서 아반떼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오던 스펙트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서모(여·34)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스펙트라 탑승자 김모(63)씨 등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광군 모 공사현장에서 수신호 작업을 하던 인부 이모(65)씨가 포크레인(운전자 이모·41)의 버킷(바가지)에 부딪혀 숨졌다. 이날 사고는 배수로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운전자가 수신호 작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체를 회전시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10분엔 여수시 남면 해상에서 무동력 어선을 타고 조업 중이던 박모(78)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박씨의 배가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일으킨 너울성 파도로 인해 흔들리면서 박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난방용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잇따랐다. 28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한 건물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13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냈다. 앞서 27일 오후 5시30분에는 영암군 금정면 A(70)씨의 한옥에서 불이나 255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청소년 13% '인터넷중독 위험'

타 지역보다 2~3%P 높아 … 예방센터 대책 부심

광주지역 인터넷 중독 아동 및 청소년이 크게 늘어 광주시 인터넷중독예방센터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9일 시 인터넷중독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관내 지역 아동센터 4곳의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K-척도(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를 측정한 결과 잠재적 위험자군이 5%, 고위험자군이 8%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다른 지역보다 2~3% 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 인터넷중독예방센터는 지역 교육기관과 청소년 지원단체와 연계해 인터넷 중독(K-척도)검사, 심리상담치료,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광주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3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 이날 현재까지 모두 4곳에서 3천515명을 면접 상담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원예시설 보조금 2억여원 빼돌려

농민·업자 등 33명 검거

장성군 공무원도 입건

농민들과 짜고 허위 서류를 꾸며 원예시설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온 원예 시설업자와 농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9일 농기계 관련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챙긴 김모(60)씨 등 원예기계 설치업자 8명과 조모(49)씨 등 농민 2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조금 관련 서류와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은 채 보조금을 집행한 장성군 공무원 강모(45)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업자들은 2006~2008년 장성지역에 친환경 원예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짜고 허위 서류를 꾸며 2억2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 등은 대당 600만~1천만원의 원예기계를 설치하면서 농민들의 자부담비(50%)를 대납해준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를 따낸 뒤 실제 기계는 400만원 이하의 저가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예시설 관련 보조금이 허술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다른 지자체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내일 세계 에이즈의 날

내국인 감염자 7천명 육박

에이즈에 감염된 내국인은 모두 6천680명이며, 이 가운데 1천183명이 사망하고 5천497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5천487명 중 99%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신규 HIV 감염인수는 5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6명)에 비해 4%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양식장 염산 유통업자 검거

여수해양경찰은 29일 사용이 금지된 무기염산을 김 양식 어민들에게 공급하려한 A(57)씨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고흥군 도화면에서 무기염산 20ℓ 들이 600통을 이 일대 김 양식 어민들에게 공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사행성 오락실 불량 업주 8명 '덜미'

쌍나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교묘히 피해오던 '불량' 업주들이 검찰에 덜미.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옥선기)는 29일 '바지사장'을 방패 삼아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 오락실 업주 황모(46)씨와 조모(48)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8명을 기소.

○…황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모(45)씨 등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뒤 실제 오락실 업주로 행세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을 속인 혐의.

○…황씨는 오락실 영업으로 수차례 단속을 당하자 문씨에게 "월급 300만원에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 주겠다"고 꾀였으나 결국 범행 1년 만에 '쇠고랑'.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